

## 광양사(光陽社)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니치아 화학 공업 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고 한다)는 광양 비즈니스 서비스(이하, 광양사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사건을 7월 26일 철회하였습니다.

광양사는 한국의 ILJIN 사의 그룹 회사인 LumiRich 사를 통해 OEM 제조한 LED 조명(PICASONA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니치아는 니치아 라이선스가 없는 LED 를 사용한 PICASONA 제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광양사는 신청일 이후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PICASONA 제품에 사용하는 LED 를 니치아 라이선스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니치아는 가처분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만, 광양사와의 사이에 니치아 라이선스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의 LED 를 사용한 PICASONA 제품에 관한 특허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치아는 이러한 PICASONA 제품에 대해서는, 니치아 라이선스가 있는 LED 를 사용한 LED 조명으로의 교체 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PICASONA 제품의 사용자측에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관한 문의처;

니치아 화학 공업 주식회사

홍보 담당

TEL: +81-884-22-2311

FAX: +81-884-23-7752